

# 영암군, 교통사고 취약도 '전국 최고' 불명예

## 도로교통공단, 전국 기초지자체 분석

영암군이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서구·북구·광산구가, 전남에서는 담양·진도·화순이 D등급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교통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3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공단이 보유한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화물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에 따라 분석하고 인구 수, 도로 연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평가는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해 A부터 E까지 5개 등

## 교차로·과속·신호위반 등 전국 평균 크게 밀돌아

### 광주 서구·북구·광산구...진도·화순 'D등급' 그쳐 남구 안전도 A등급 전국 3위...동구 B등급 16위

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대상은 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69개 자치구, 78개 자치시, 80개 자치군 등 총 227개 기초자치단체다.

영암군은 군 단위 80개 지자체 중 8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종 점수 73.08점으로 E등급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군 80.89점)보다 7.81점 낮았다.

부분별로는 사업용자동차 83.04점(C등급), 자

전거 및 이륜차 80.84점(D등급), 보행자 76.88점(D등급), 교통약자 72.83점(D등급), 운전자 66.45점(E등급), 도로 환경 58.41점(E등급)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은 도로환경 영역(단일로 64.27점, 교차로 52.56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교차로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속(55.94점), 신호위반(55.51점), 중앙선침범(70.16점) 등 운전자 영역 점수도 전국 평균

(78.96 내외)을 크게 밀돌았다.

담양군 또한 77.14점(E등급)으로 80대 지자체 중 75위에 해당했으며, 진도군(78.25점·D등급)은 70위, 화순군(78.82점·D등급)은 68위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광주시 광산구는 75.83점(D등급)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61위의 성적을 내었다. 전국 평균(자치구 78.85점)과는 3.02점 차이가 났다.

광산구는 보행자 81.72점(B등급), 자전거 및 이륜차 74.43점(D등급), 교통약자 75.13점(E등급), 운전자 74.45점(E등급), 도로환경 73.88점(E등급) 등 전반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약자 중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65.86점), 택시에 의한 사고(58.81점), 운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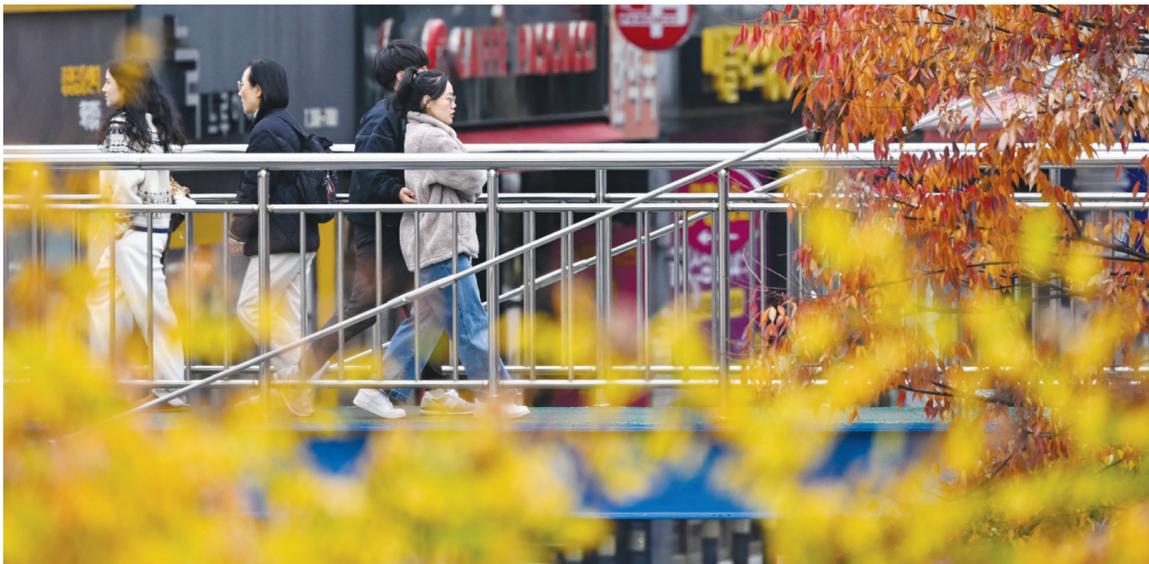
신호위반 사고(59.35점)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남구는 83.58점(A등급)으로 전국 69개 구 중 3위를 차지했으며, 동구는 81.34점(B등급)으로 16위에 올랐다.

서구는 77.96점(D등급)으로 전국 46위에 머물렀으며, 북구는 77.41점(D등급)으로 전국 49위로 떨어졌다.

고영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교통안전지수 산출결과에 나타난 취약 영역과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는 교통안전대책을 특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은 지자체 중장기 분석 등 지역 교통안전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 최고기온이 1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이 두터운 옷차림을 하고 육교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강기정 시장, 노조혐오 발언 사과하라”

### 금속노조 “GGM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행정을” 촉구 광주시 “GGM 설립 취지·상생협 합의정신 강조한 것”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노조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7일 논평에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직자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조합 설립의 권리를 거부하는 표현을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 시장은 노조혐오 발언에 사과하고 GGM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인정여부는 전제 대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다”면서 “상생협정서 작성 취지가 노조 설립을 안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매년 7만대 이상 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은 5만대에 그치고 있고, 약속했던 주택 지원

등 복지 혜택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가 없을 때는 상생협의회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지만 노조가 설립되면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GGM 설립 취지와 상생협의회 합의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노사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달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35만 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GGM의 창업 정신이다.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조 결성에 대한 유감 표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전남 올 첫 한파주의보... 오늘 아침 영하권

### 영하 1~5도·낮 최고 8~11도 그쳐 강풍주의보 발효에 체감기온 '뚝'

광주·전남 지역에 올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 추위가 시작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지난주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겠고 18일에는 아침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17일 예보했다.

18일은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낮 최고기온 8~11도를 보이겠고, 19일에는 아침최저

기온 영하 2~7도·낮최고기온 11~15도에 분포하겠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8시를 기해 담양, 곡성, 구례, 장성, 순천, 완도, 영광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기상청은 17일 오전부터 고흥, 여수, 해남, 무안 등 전남 10개 지역에 강풍주의보도 발효했다. 18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전남 해안

에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 동쪽먼바다 역시 19일까지 바람이 초속 10~21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5.0m로 높게 일겠다.

갑작스러운 강추위와 바람은 19일까지 이어지다가 20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최저기온 1~6도, 최고기온 13~15도)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 건설·중소금융기관 임금체불 31억원

### 광주고용노동청 특별 감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광주지역 건설업·중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31억여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51개 기업(건설·중소 금융 기관)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51개 기업 모두에서 31억 2000만원의 체불액이 적발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59건에 달했다.

즉시 시정지시를 통해 체불 임금 30억 8000만 원은 지급됐다.

고의로 퇴직금과 1억 33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습 체불한 A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기소외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역의 중견 건설사 두 곳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 26억6000여만 원을 확인해 지급토록 했다.

노동자 27명에게 2700만원에 달하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지역의 한 축협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시했다. 해당 축협은 휴일 근로수당을 당직수당으로 편입 처리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임금지급을 유도하고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문화신협**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